

근로자 채용신체검사서 제도 개선

무주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으로 채용 신체검사 대체

각 관청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으로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그동안 각 부서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구비서류로 접수했던 '채용신체검사서'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 조치에 따른 것.

비용을 지불하며 제출해야 할 '채용신체검사서' 제도를 개선해 근로자들

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건강인(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조회(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의 절차로 발급해 제출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 기간의 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 건강검진을 받았어도 검진 기관으로부터 검진 결과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에나 제공될 수 있어 사전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노무팀 류광열 팀장은 "지난 2일부터 공공·행정기관 채용 시 국가건강검진이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되면서 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자들은 경제·시간적 부담을 덜게 됐다"며 "이로써 근로자들은 많은 보람과 편익이 따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국·공립대학, 공적 유관단체가 해당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스마트빌리지 공모 선정

국비 10억원 확보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본격 구축

진안군이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공모한 '2022년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전춘선 진안군수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농·어촌의 생산성 향상, 안전강화 및 생활편의 서비스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진안군은 이번 공모에 '1기반 스마트 주민생활지원 contact 서비스(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로 응모하여 12개 지자체 중 2위를 차지하여 공모에 선정됐다.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은 진안군에

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AI 기술이 적용된 민원처리시스템으로, 군은 국비 10억을 포함 총사업비 20억으로 읍면사무소·보건진료소 및 거점마을 등 38개소에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용기기를 통해 ▲음성과 문자로 각종 생활정보·복지서비스·관광정보 등 제공 ▲원격으로 민원서류 발급과 민원신청 업무를 처리 ▲화상을 통해 공무원과 민원인이 직접 상담 ▲각종 정책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생활불편 사항 신고·접수가 가능해진다.

전춘선 진안군수는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 불편을 줄이고, 민원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제33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3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의결했다.

이번 회기 중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중문)에서는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안은 당초 4,313억원 보다 86억원이 증액된 4,399억원 규모로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장수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국·도비 사업비 변경 내시분이 주로 포함됐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공공용지 편입된 사유지 분할측량비 지원

건축·개간 등 원하는 군민 불편 해소

진안군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분할측량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70년대 새마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에 분할 측량비를 지원해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고, 주민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 토지는 도로·제방·하천

등에 편입된 사유지다.

그동안은 이러한 토지에 건축 등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인이 공공용지와의 분할을 위한 측량비를 부담해야 했다. 또한 사유지에 개설된 공공도로의 통행·진출입을 토지소유자가 막아 주민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측량 접수 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

지의 분할 목적 여부를 확인해 이에 해당될 경우 분할측량비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해당 토지소유자가 군 민원봉사과(지적팀)를 방문해 토지 현황 등을 확인한 후 공공용 사유지 분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측량비 지급 및 측량완료 후 분할 측량 성과도를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한다.

작년 하반기에 사업이 첫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35필지에 분할측량비 920만원을 지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사과 병해충 예찰요원 양성 나서

무주군은 사과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찰요원을 양성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 교육 대신에 오는 18일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사과 재배 5년 이상인 농업인 중 병해충 예찰요원 희망자 18명을 대상으로 한다.

사과 병해충 관련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주군에서 지원한다.

교육 첫 날인 14일에는 (사)한국과수 병해충예찰연구센터 장일 대표 등 전문가들로부터 병해충 예찰의 이해를 비롯해 도감의 병해 및 해충, 농약 분

류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15일부터 3일 동안은 시기별 사과 병해충 예찰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올해도 유튜브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마지막 날 평가시험을 통해 사과 전문예찰 전문 요원을 선발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이종철 과장은 "사과 재배에 관한 핵심 기술부터 현장컨설팅 능력,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생동감 있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기술 등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농촌소득사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대환대출 실시

장수군은 농촌소득사업 및 경영회생사업 융자금 미상환 농가를 대상으로 매월 대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대환대출 지원사업은 2000년 11월 이전 농촌소득사업과 경영회생사업에 따른 융자금 미상환 농가 중 농협에서 대출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 융자금을 상환해 줌으로써 연체이자로 인한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리 융자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본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농협에서 발급받은 신용조사서를 구비해 장수군 농업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촌소득사업 운영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거친 후 융자금 상환 대상자를 확정해 심의



장수군청 전경.

결과를 농협에 통보하면 대환대출이 이뤄진다.

차주영 농업정책과장은 "융자금 미상환 농가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융자금 미상환으로 각종 보조사업에서 제한됐던 문제를 해소할 수는 대환대출 제도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가로등 취약지역 선정 공사 추진

무주군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 취약계층에 방길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 가로등 설치공사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가로등 취약계층 대상지는 각 읍·면에서 무주군에 대상지를 추천하면 해당 무주군 가로등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통해 최종 설치 대상지를 선정한다.

현재까지 접수된 대상지는 6개 읍·면 가로등 총 69개소다. 6개 읍면은 ▲무주읍 12 ▲적상면 8 ▲무풍면 9 ▲설천면 14 ▲안성면 19 ▲부남면 7 개소이며, 가로등 69개소는 강관주(통신사가 설치한 전주) 16개소, 한전주(한전이 설치한 전주) 53개소다.

이에 군은 공공성을 판단한 후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설치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규

가로등 설치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변 가구의 수, 취약지역, 도로의 연속성 등을 파악하여 공공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외에도 군은 설천면 삼공, 보안, 비례, 지점마을, 안성면 수라마을에 가로등 설치 예정되고 있으며, 안길과 진입로, 천변도로 총 32여 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건설과 건설행정팀 박진규 팀장은 "앞으로도 가로등 취약지역을 주민들과 함께 찾아나가며 모든 주민들의 귀갓길 불안감 해소 및 야간 통행의 안전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로등 설치여부는 읍·면사무소 및 무주군 건설과 건설행정팀(320-2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